

# '전라좌수영 독제' 여수 대표 문화예술브랜드로 키운다

### 이순신 장군 출정 전 지냈던 제사 고종 통해 재현...관광상품으로 지난해 시범공연 10회 추진...역사문화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이순신 장군이 출정 전 지냈던 제사인 '전라좌수영 독제'가 여수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브랜드로 재탄생한다.

여수시는 새해 문화사업으로 전통예술 재현 복원사업 1호로 선정된 '전라좌수영 독제'를 시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예술 브랜드로 키워나간다고 6일 밝혔다.

독제란 군중의 앞에 세우는 독기에 드리는 제사로 조선시대 군대 출병 때에 주로 지냈다. '독소(독제장소)' 또는 '독소도'라고 불리는 곳에서 거행되며, 한양을 비롯한 전국의 병영과 수영이 있는 곳에 독소가 설치돼 있다. 독은 정병 대상의 머리를 창에 뿜는 상으로서 이를 통해 군대의 위용을 보이곤 했다.

특히 독제에 수군출정식과 시립국악단의 공연·무용 등을 결합함으로써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역사문화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문화예술브랜드 사업 본격 추진을 앞두고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전라좌수영 독제' 브랜드화를 위한 시범공연을 10회 추진,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진행되는 문화예술브랜드 사업 '전라좌수영 독제'는 제1부 독제례와 제2부 군점 및 수군출정식으로 진행되며, 이순신광장에서 막을 올려 전남관에서 막을 내릴 예정이다.

독제는 임진왜란 당시에도 지냈다. 주로 경첩(驚蟄)과 상강(霜降)에 이루어졌으며, 무관(武官)만이 무복 차림으로 참여했다. 특히, 독기(蠟燭)는 임금의 대가(大駕) 행렬에서도 의장(儀仗)으로 쓰이는데 임금을 호위한다는 의미가 있다.

제1부 독제례는 찬실배설과 사배, 전폐, 간척무, 초헌, 공시무, 아헌, 창검무, 종헌, 음복·수조, 철변두, 망예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이어지는 제2부 '군점( 군사적행사) 및 수군출정

식'은 임진왜란 당시 여수에서 최초로 출병한 이순신 장군의 승리의 의미를 담은 프로그램이다.

이순신장군이 전라좌수영 본영에서 거북선을 건조하고 5관(순천 도호부, 낙안군, 보성군, 광양현, 흥양현), 5포(방담진, 사도진, 여도진, 발포진, 녹도진)의 장수, 수군들과 전라좌수영 본영에 모여 직접 군사를 점고(사열)하고, 무기 및 수군의 정신 무장을 점검한 후 출정하는 과정을 담는다.

이런 의미에서 전라좌수영의 본영인 전남관이 자리한 여수는 '전라좌수영 독제'의 최적지라 하겠다.

'군점( 군사적행사) 및 수군출정식'은 수군(5위 진법 대열) 정렬(좌부, 전부, 중부, 우부, 후부)과 나발 연주, 3사 15초 수군 군점, 수군출정, 취태대 시기행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전라좌수영 본영인 여수에서 치러졌던 '전라좌수영 독제'를 고증을 통해 재현함으로써 역사문화관광 자원으로 승화시키고 호국정신을 일깨우고자 한다"며 "여수의 대표 문화예술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시가 이순신 장군이 출정 전 지냈던 제사인 '전라좌수영 독제'를 여수를 대표하는 문화예술브랜드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독제 재현 모습. <여수시 제공>

## 순천시, 돌봄 취약계층 매월 방문으로 더 가까이

### 전국 유일 공무원과 1:1 결연 가정 방문해 물품 전달·현장복지

순천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돌봄 취약계층과 온정나눔사업인 '1:1 행복드림팀' 사업이 분기별에서 매달 시행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1:1 행복드림팀' 사업은 시청 내 6급 이상 공무원 545명과 취약계층 545명이 1대1 결연으로 온정을 나누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단순한 지원물품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결연한 공무원들이 대상 가정을 방문, 지역사회 일원으로 현장복지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올해는 분기 1회 방문하던 사업을 월 1회 방문으로 변경, 공무원들이 결연 가정을 매월 방문해 보다 친밀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방문시 전달물품은 라면, 바디세트, 물케이크, 김, 달걀·바나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물품을 지원하여 대상자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결연대상 한 어르신은 "자식이 그림고 사람이 그리운데 매달 잊지 않고 찾아와 주니 너무나 고맙



순천시 관계자들이 돌봄 취약계층 어르신을 찾아 지원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다"며 "시청 공무원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행복드림팀원인 6급 이상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우리시는 사람들

위한 복지 실현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45세까지 확대

### 최대 10년 지원 전국 최고...다자녀 가정엔 주거전용면적 제한 폐지

광양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45세까지 확대 시행된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관내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임대)에 따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선 8기 청년주거지원 대표 공약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확대 방안은 대상자 연령을 기존 19~39세에서 19~45세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제한을 전격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이다.

주택 구입의 경우 대출금 1억원 이내, 전세(임대)의 경우 6600만원 이내에서 연 최대 3%의 대출 이자를 매월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지원 총액(54억원), 지원 대상자 수(1329명) 등의 객관적인 수치와 10년의 최대 지원 기간은 전남을 넘어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주거 안정 정책 등에 힘입어 광양시 인구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로써 도내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으로 인구가 증가한 광양시는 외지 청년 인구의 유입을 유도하고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

해 올해부터 '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시행기로 한 것이다.

'광양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이나 관련 서류는 광양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청년일자리과(061-797-1994, 1995) 또는 광양청년포터(061-818-2020)로 문의하면 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최근 주택가격 및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주거 마련이 힘든 청년들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광양시는 앞으로도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할인 받으세요

### 보성군 홍보...1월 4.58%·3월 3.75%·6월 2.5% 할인

보성군이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1월 중 연납 신청할 경우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하면 공제기간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고 1월은 연세액의 4.58%, 3월 3.75%, 6월 2.5%, 9월은 1.2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다.

납부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수납하거나 은행 CD/ATM기, 위택스(인터넷, 스마트

폰 앱)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서가 발송되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할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엔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돼 불이익은 없다. 보성군이 아닌 타시군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자동 연계돼, 그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한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괄 계산해 환급될 수 있도록 환급 사전 계좌 등록도 운영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061-850-5192)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보성=김은택 기자 kyb@

## 광양 '아토피피부염·천식' 환아에 의료비

### 검사·진료비 1인 年 20만원...보습제, 중위소득 150%까지 지원

광양시는 아토피피부염과 천식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환아에게 의료비 및 보습제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아토피피부염(L20)과 천식(J45)을 진단받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의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주민등록등본, 당해 연도 보험료 납부 확인서,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광양시보건소 도시보건과에 제출하면 된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 중 알레르기 확진 검사비 또는 진료비를 1인 연 20만원(예산 범위 내) 내에서 지원하며, 신청일 이전 발생한 검사·진료비는 지원 대상서 제외된다. 급여·비급여 지원이 가능하나 제증명료, 상급병실료 등 일부 항목은 제외한다.

보습제는 분기별 2개씩 제공된다. 피부 보습이

매우 중요한 아토피성피부염 환아의 보습제는 중위소득 150%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 의료급여·다문화가정·한부모 가정 증명서, 알레르기 질환 확진 서류(진단서·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당해 연도 보험료 납부 확인서,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광양시보건소 도시보건과에 제출하면 된다.

박혜정 광양시 도시보건과장은 "광양시는 의료비, 보습제 등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들의 건강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알레르기 약화인자 관리 및 예방에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순천시, 새해 '반부패·청렴 실천다짐 결의'



순천시가 새해를 맞아 '반부패·청렴 실천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순천시는 지난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갖고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순천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금품 등 수수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도 청렴도 향상 및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해 시민과 소통하여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시책을 발굴하고 추

진할 계획이다.

이번 청렴실천결의대회는 지난 2024년도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전남도의 5개 시 단위 지자체 중 순천시가 유일하게 2등급을 받았으며, 전국 75개 시 중 1등급은 없었던 것에 대해 올해는 반드시 1등급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자 마련됐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종합청렴도 평가 2년 연속 2등급, 전남도 시 단위 지자체 중 청렴도 1위에 안주하지 않고 최고등급 1등급 달성을 위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곡성물, 명절 앞 농특산물 40% 할인

### 곡성군 온라인 쇼핑몰 24일까지 전 품목 기획전

곡성군 온라인 쇼핑몰 '곡성물'이 설 명절을 앞두고 최대 40% 할인의 특별기획전을 갖는다.

이번 기획전은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전 품목에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명절 선물의 주요 품목으로 꼽히는 한우·버섯·사과·한과 세트 등에 대해 최대 40% 할인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고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새해 덕담을 작성한 고객 100명을 추첨해 1만원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시행

하고, 신규 가입 시 3000원 할인 쿠폰 지급과 전 상품 무료배송 이벤트 등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곡성물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고객들에게 더 큰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 행사를 준비했으니 따뜻하고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곡성물에서는 착 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곡성산정상품권 결제가 가능하여 소비자들이 더욱 알뜰하고 편리한 쇼핑이 가능해졌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kwangju.co.kr